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농촌취약계층 '집수리' 봉사 구슬땀

윤 김연일기자 | 승인 2026.07.03 10:35

최종태 지사장, "농촌의 어려운 이웃 주거 개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전경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지사장 최종태)는 최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동행의 실천으로, 이천시 부발읍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인 '2026년 농촌집고쳐주기'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

농촌집고쳐주기 사업은 지난달 22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후된 화장실 철거에서부터 안전에 취약했던 화장실의 천정, 바닥타일, 창호, 문, 위생도기 등을 모두 교체하고 전체적인 보수와 집 주변의 청소 및 환경도 정리했다.



‘2026년 농촌집고쳐주기’봉사에 참여한 여주이천시사 직원들

2008년 출범한‘농촌집 고쳐주기’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이천시), 다솜둥지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농어촌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는 봉사활동으로 농어촌 지역의 취약계층으로부터 호응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개인 가정집 수리에서 노인회관 경로당 등 공동 시설로 대상을 확대했다.



화장실 수리 및 집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

최종태 지사장은“장마와 무더위를 앞두고 소외된 이웃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화장실 수리 및 집주변 청소 등 봉사활동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비롯한 영농철 농촌일손 돕기,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ESG경영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상생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저작권자© 전국매일신문-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연일기자